

적천수

제7장 체용정신

체용 (體用)

道有體用 不可以一端論也

도유체용 불가이일단론야

要在扶之抑之得其宜

요재부지억지득기의

도(道)에는 체(體)와 용(用)이 있으니
한 가지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.

억누르고 도와주되[抑扶] 그 중 마땅한 방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.

약(弱)함이 극(極)에 달하여 종(從)하는 경우

丙	丙	庚	戊
申	申	申	寅

戊	丁	丙	乙	甲	癸	壬	辛
辰	卯	寅	丑	子	亥	戌	酉

정신 (精神)

人有精神 不可以一偏求也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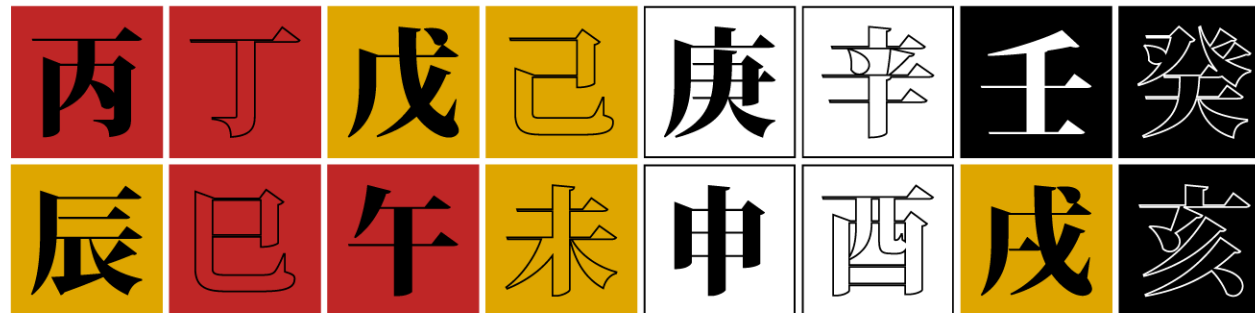
인유정신 불가이일편구야

要在損之益之得其中

요재손지익지득기중

사람에게는 정(精)과 신(神)이 있는데 한쪽만 가지고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.
덜어주고 보태주되[損益, 손익] 그 중화(中和)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.

오행이 유통생화(流通生化)하는 경우



오행이 유통생화(流通生化)하지 못한 경우



중화 (中和)

既識中和之正理

기식중화지정리

而於五行之妙 有能全焉

이어오행지묘 유능전언

사주 기운에 치우침이 없음[中和, 중화]의 올바른 이치를 이미 깨달았다면
오행(五行)의 흐름의 오묘함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.

중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

戊	癸	丙	己
午	未	子	酉

戊	己	庚	辛	壬	癸	甲	乙
辰	巳	午	未	申	酉	戌	亥

중화를 이룬 경우

戊	戊	庚	庚
午	辰	辰	申

戊	丁	丙	乙	甲	癸	壬	辛
子	亥	戌	酉	申	未	午	巳

인원 (人元)

月令乃提綱之府 譬之宅也

월령내제강지부 비지택야

人元爲用事之神 宅之定向也

인원위용사지신 택지정향야

不可以不卜

불가이불복

월령(月令)은 사주(四柱)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집에 비유할 수 있고 지장간(支藏干)인 인원(人元)은 일을 처리하는 신(神)으로 집의 정해진 방향과 같으니 이들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낼 수 없다.

인원(人元)이 용신을 도와준 경우

丙	戌	丙	甲
辰	寅	寅	戌

甲	癸	壬	辛	庚	己	戊	丁
戌	酉	申	未	午	巳	辰	卯

인원(人元)이 용신을 도와주지 않은 경우

庚	戌	丙	甲
申	辰	寅	戌

甲	癸	壬	辛	庚	己	戊	丁
戌	酉	申	未	午	巳	辰	卯

진신 (眞神)

令上尋眞聚得眞 假神休要亂眞神

영상심진취득진 가신휴요란진신

眞神得用生平貴 用假終爲碌碌人

진신득용생평귀 용가종위록록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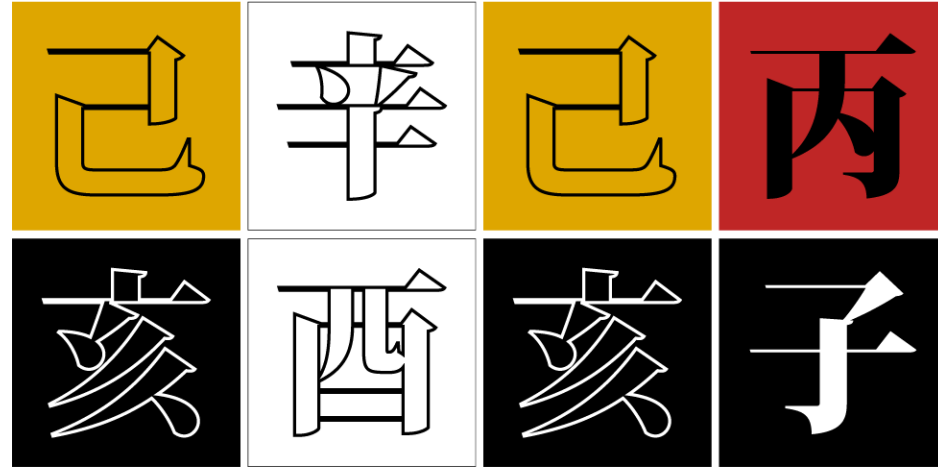
월령(月令)에서 참된 용신[眞神, 진신]을 찾아 얻고 이것이 천간에 투출하면
가신(假神)은 이 진신(眞神)을 어지럽히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.
진신이 용신(用神)이 되면 일평생 귀함을 누릴 수 있으나
가신으로 용신을 삼으면 별 볼일 없이 살다 인생을 마치게 된다.

진신이 월령을 차지한 경우

甲	己	丙	甲
子	丑	寅	子

甲	癸	壬	辛	庚	己	戊	丁
戌	酉	申	未	午	巳	辰	卯

진신무정(眞神無精) 가신허탈(假神虛脫)의 경우



은원 (恩怨)

兩意情通中有媒 雖然遙立意尋追

양의정통중유매 수연요립의심추

有情却被人離間 怨起恩中死不灰

유정각피인이간 원기은중사불회

일주(日主)와 희신(喜神)이 정(情)으로 통하고 그 사이에 이를 이어주는 매체가 있으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그 뜻한 바를 찾아 이루려 하지만 정이 있다 해도 중간에서 이간질로 서로를 갈라놓으려는 자가 있으면 은혜로운 가운데 원한이 생겨나니 죽어도 재가 되어 사그라지지 않으리라.

둘 사이에 중매쟁이가 있는[如中有媒, 여중유매] 경우

戊	戊	甲	丁
午	戌	辰	酉

丙	丁	戊	己	庚	辛	壬	癸
申	酉	戌	亥	子	丑	寅	卯

타인으로부터 이간질을 당한[被人離間, 피인리간] 경우

